

류츠신(劉慈欣) 『삼체(三體)』 속 정치적 의미망*

박민호**

목 차

1. 들어가며 : 인류의 '벼랑끝전술'과 위협의 유효성
2. '생존'이라는 절대가치
3. 포기된 주권, 자기보호의 역설
4. 나가며 : 남은 자들의 결단과 인류의 위대함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세계적인 SF 작가 류츠신의 대표작 『삼체』에 녹아 있는 정치적 의미의 성격을 일별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시야에서 이 작품의 의미를 모색해보려는 시도이다. 류츠신의 『삼체』는 우주의 보편 원리를 '암흑의 숲'으로 표현하면서, 우주 내 지적 생명체들의 존재 양상을 엄격한 생존 투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체』 제3부에 등장하는 스토리에서 토마스 웨이드와 청신 사이에 존재하는 대립 구도는 냉혹한 현실주의/권위주의와 이상적 인도주의/민주주의 사이의 대립 구도로 이해되며, 특히 청신의 유약함이 거듭 초래한 인류의 위기와 파멸은 독자들의 사유를 전자의 이념에 기초한 정치적 사유로 견인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작품의 대단원에서 청신이라는 최후의 인류가 보여주는 보편애와 참여의 정치가 이 작품의 성격을 단순히 '냉혹한 현실주의'로 해석하는 것에 저항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작가는 이러한 서사 장치를 통해, 독자들의 사고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최대치로 해방시키는 효과를 자아낸다.

* 이 논문은 2023년 5월 20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상지대학교 FIND칼리지 자유전공학부 조교수

키워드: 류츠신, 『삼체』, 벼랑끝전술, 예외상태, 주권, 민주주의

1. 들어가며 : 인류의 ‘벼랑끝전술’과 위협의 유효성

최근 중국문학연구계에서 SF 장르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멀게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가깝게는 탈냉전 이후 지구적 규모의 전쟁/긴장이 부재하는 상대적 평화기가 끝나고, ‘신냉전’이라 일컬어지는 새로운 지구적 차원의 대립 국면이—그 중심에 ‘중국’이 있다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전개되면서, 미래 사회와 인류에 대한 낙관론이 비판론으로 이행하는 추세 때문인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 일찍이 류츠신이 지적한 대로, SF라는 장르는 대체로 ‘디스토피아’를 양분으로 삼는다.¹⁾ 즉 인류의 미래를 극도의 위기와 혼란으로 묘사함으로써 인류 문명과 이념의 현재를 검토하는 데 SF라는 장르적 특성은 상당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SF가 그리는 그 ‘위기’와 ‘혼란’은 많은 경우 지구 밖 광활한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미지의 지적 생명체의 공격으로부터 비롯되며, 그런 까닭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진지한 생각거리를 제공하기에는 허무맹랑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일종의 ‘우언(寓言)’으로 읽을 수 있다면, 그것은 기존의 본격문학에서 제공할 수 없었던 특별한 의미를 띠고 우리의 사유 지평을 강하게 뒤흔들 수도 있을 것이다.²⁾

1) 劉慈欣 吳言, 「星空的奧妙: 劉慈欣訪談」, 『名作欣賞』, 2016年 第1期, 47쪽

2) 예컨대 천샤오밍(陳曉明)은 류츠신의 이 작품이 “인성, 윤리도덕, 역사 관념의 한계에 끊임없이 도전했”던 ‘전통문학’과 마찬가지로, “우주론의 기초 위에 서서 미래 인류의 명운을 사고했”고, “지대한 문학의 힘으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한다. 陳曉明, 「后文明時代的寫作或后文學的誕生」, 『文藝爭鳴』, 2021(09), 12쪽. 한편 국내 학계에서 이 작품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대표되는 홉스의 정치사상과 인간 윤리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거나(박민호, 「류츠신 『삼체』를 통해 본 정치적 알레고리와 윤리의 문제」), 인간 스스로 당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데서 오는 무력감과 허무주의를 내포하고 있거나(박정훈, 「류츠신 『삼체』의 니힐리즘 세계관 고찰」), 혹은 인간과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류츠신의 대표작 『삼체(三體)』는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만한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지난 한 세기동안 서양인에 의해 완벽하게 주도되어 왔던 세계 SF 문단에서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휴고상(Hugo Prize)을 수상한 류츠신의 위 작품은 ‘문화대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 한 복판에서 이루어진 외계(즉 ‘삼체’)와의 교신이 결국 외계 세력의 지구 침공, 제3의 외계 세력에 의한 삼체 세계 파멸과 태양계의 2차원화, 그리고 우주 전체의 위기로 이어지는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한다. 공간적으로 보면 이 소설은 우주 전체(최소 은하계)를 서사 무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시간적으로는 현시대로부터 서기 1890만년까지의 일들을 다룬다.

이러한 흐름으로 전개되는 소설의 서사 가운데서 핵심은 지구인과 삼체인 사이의 대립이라 할 수 있다. 지구로부터 4.3광년 이격되어 있는 센타우리 삼중성계(일명 ‘삼체’)의 우주선단이 광속의 1/10에 달하는 속도(이는 최고속도임)로 지구를 향해 공격을 개시했고, 그들이 약 400년 후 지구에 도착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구인들은 그들의 압도적인 과학기술과 무력에 맞서 대응책을 고심한다. 지구인들은 삼체인들이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면벽 프로젝트’를 통해 삼체인들의 눈을 속여 그들의 공격에 맞설 방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 ‘면벽 프로젝트’의 일원인 ‘면벽자’ 중 한 사람이었던 뤼지(邏輯)는 삼체인들을 지구로 끌어들이는 예원제(叶文洁)로부터 ‘암흑의 숲’이라는 우주 공리에 관해 전해듣는다. 이 공리는 우주에 속한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제일원리로 삼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은 철저한 약육강식의 논리 하에서 미지의 생명체에 대해 무자비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뤼지는 그 ‘암흑의 숲’ 원리에 따라 태양을 이용하여 제3의 외계 세력에게 삼체의 좌표를 전송할 수 있는 송신 체계를 구축한 후, 실시간으로 지구를 감시하고 있는 삼

기술을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계몽주의 관점을 넘어선 포스트휴먼적 존재론을 담고 있는 것으로(손주연, 「중국 SF의 포스트휴머니즘적 문학 상상—류츠신의 『삼체』를 중심으로」) 해석되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류츠신의 작품이 단순한 대중통속소설이 아니라 인류의 근원적 고민과 문제의식을 수반한 것임을 보여준다.

체인들과 교섭한다. 이 송신 체계를 발동하면 삼체의 좌표 뿐만 아니라 지구의 좌표도 노출되므로, 결국 양 세계는 공멸하게 된다. 그러나 이 체계는 적어도 삼체 세력이 지구를 공격하는 것을 막는 데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³⁾이라 할 수 있다. 작품은 뒤흔치가 획득한 그와 같은 ‘전술 이행 권한’을 가리켜 ‘위협통제권’이라 명명한다.

이러한 ‘벼랑끝전술’은 협상 참가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생산하기 위해 취하는 세 가지 전략적 행동(공약(commitment), 약속(promise), 위협(threat))⁴⁾ 중 ‘위협’에 해당한다. 여기서 ‘위협’이란 “한 행위자가 자신이 이미 말한 요구를 상대방이 따르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해로운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선언이다.”⁵⁾ 당연히 이 ‘위협’이 실제로 위협 받는 쪽에게 위협적이기 위해서는 위협하는 쪽이 실제로 그 위협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믿음이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위협을 받는 쪽이 위협하는 쪽의 요구에 따르도록 강제되지만, 위협하는 쪽에서도 그 위협 내용이 자신에게 일정한 손해를 끼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위협 내용은 위협 주체에게나 위협 대상에게나 모두 손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위협하는 쪽이 일방적으로 이익만을, 위협 받는 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만을 보는 관계에서는 그 위협이 무분별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위협 주체와 위협 대상 사이에 ‘위협 내용’을 매개로 한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위협 주체가 위협 내용을 매개로 이익을 얻은 후 더 이상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할 이유가 없음을,

3) ‘벼랑끝전술’은 북한이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외교전술의 하나로 “상대방이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한 뒤, 위기를 완화시키고 해소하면서 자신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김근식, 「북한의 핵협상 : 주장, 행동, 패턴」, 『한국과 국제정치』 27권 1호, 2011. 3, 151-152쪽.

4) “공약은 어떤 행위자가 우선적인 행동 선택이 가능하여 그러한 행동 선택이 상대방에게 신뢰될 수 있는 경우, 그 행위자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선택하든 상관없이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행동이다. (중략) 약속은 한 행위자가 자신이 이미 말한 요구를 상대방이 따른다면, 상대방에게 보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는 선언이다.” 손무정, 「2차 북한 핵 위기 협상과 미국과 북한의 벼랑끝 정책」, 『국제정치연구』, 8권 1호, 2005. 6, 3-4쪽.

5) 손무정, 위의 글, 3쪽.

즉 그 위협의 지속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도 불리한 것임을 위협 대상에게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위협은, 위협하는 쪽에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이지만, 동시에 위협하는 쪽에도 위협적인 것이어야 한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위협통제권’은 지구 세계가 그와 같은 ‘벼랑 끝’에서 취하는 ‘전략적 행동’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지구 세계가 ‘위협통제권’을 통해 삼체 세계에 요구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개괄할 수 있다. 하나는 지구 세계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라는 것, 다른 하나는 삼체 세계의 발달한 과학 기술을 지구 세계에 전수하라는 것. 삼체 세계는 이 두 가지 요구에 모두 응했다. 그런데 삼체 세계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과학 기술을 지구 세계에 전수하여 지구 세계가 자신들과 동등한 과학적 지식을 지니게 된 후에도, 지구 세계가 지속적으로 그 ‘위협통제권’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요구—예를 들어 삼체인들을 노예화한다거나 삼체 세계의 자원을 착취하는 등—를 해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작품 내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략적 행동으로서의 ‘위협’이 성사되려면 그 ‘위협통제권’은 그것이 발동될 경우 삼체 세계 뿐만 아니라 지구 세계에도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을 끼치는 것이어야 한다. 실제로 그것은 양 세계 모두를 궤멸시키는 성질의 수단이었으므로, 만일 지구 세계가 삼체 세계의 군사적 공격을 방어할 만한 과학 기술을 보유하게 된다면, 그들은 더 이상 그 ‘위협통제권’을 위협의 도구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는 삼체 세계가 뤼지가 제시한 그러한 요구 조건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숨겨진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위협의 유효성은 다른 곳에서 균열을 일으켰다. 뤼지는 자신이 창출한 그 ‘위협통제권’을 오로지 흰 벽만을 응시한 채 54년 동안 유지했다. 그것은 삼체인이 지구를 감시하기 위해 보낸 지자들이 그의 눈빛으로부터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만일 삼체 세계가 그의 눈빛으로부터 일말의 망설임이나 주저함을 발견한다면, 뤼지의 ‘위협’이 실제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다는 ‘믿음’은 크게 줄어들고, 위협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뤼지는 자신의 성격이나 감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스스로 차단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삼체 세계에게 실질적인 위협을 안겨줄 수 있었고, 그러한 방식으로 오랜 기간 지구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했다. 작중 뤼지라는 인물의 위대성은 그 위협의 실질성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의 삶과 인격을 극도로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지경으로 밀어넣을 정도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닌 인물이었다는 점에 있었다.

반면 뤼지에 이어 청신(程心)이 2대 검잡이로 선출되자마자, 삼체 세계는 태양계 내에 감춰둔 6개의 ‘물방울’로 지구를 공격한다. 청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10여 분의 시간 동안 그 ‘위협통제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포기한다. 여린 감수성의 소유자인 그녀는 삼체 세계와 지구 세계를 공멸로 몰고갈 그 ‘위협’을 도저히 실행에 옮길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체 세계가 청신의 그러한 행동을 사전에 어떻게 인지할 수 있었나 하는 점인데, 이는 청신이 2대 검잡이로 선출되리라는 충분한 정황 속에서—민주적 제도 하에서, 대중에게 가장 큰 인기를 구가하던 청신이 검잡이로 선출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었다—삼체 세계가 그녀의 인격과 내밀한 정서를 사전에 깊이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즉, 상기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뤼지에 의해 마련된 그 위협천만한 ‘벼랑끝전술’의 성패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 위협의 실질성을 상대로 하여금 믿게 하는가에 달려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지구 세계의 전략적 행동의 일환이었던 그 위협은 상대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고 인류의 요구를 수용하게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위협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충분하게 지속되지 못함으로써 중국에는 실패로 귀결되고 말았다.

2. ‘생존’이라는 절대가치

작품 속에서 삼체 세계가 유래를 알 수 없는 외계 공격에 의해 멸망한 후,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생존의 기회는 세 인물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윈텐밍(云天明), 청신, 웨이드(Thomas Wade)가 바로 그들이다. 윈텐밍은 대학 시절 청신을 짝사랑했던 사내로, 후에 청신에 의해 ‘뇌’의 형태로 삼체 세계로 보내진 뒤 삼체의 발달한 과학 문명을 이해하게 되고, 후일 청신을 만나 지구가 제3의 외계 문명에 의해 멸망당하지 않는 ‘두 가지 방법’과 외계 문명의 공격 방식을 대단히 응축된 ‘동화’적 은유로 전달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웨이드는 삼체 위기가 처음 닥쳤을 때, “삼체의 함대와 모성(母星)에 대한 직접적인 정찰을 목표로 삼은 정보 기관”⁶⁾인 PIA의 국장으로 청신의 상관이자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일도 불사하는 냉혈한이었다. 그는 청신이 검잡이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일하게 간파하고 그녀를 살해하려 했으며, 윈텐밍이 우화적으로 전한 지구 생존 프로젝트 가운데—나중에 밝혀진 바, 가장 정확하고 실현 가능한 것이었던—‘광속 우주선 프로젝트’를 ‘불법적으로’ 추진하다가 청신에게 저지당했다.

인류는 제3의 외계 문명으로부터 예상되는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지니고 있었고, 그중 두 가지는 윈텐밍으로부터 얻은 것이었다. 첫 번째는 ‘병커 프로젝트’로, 외계 문명이 ‘광립’을 발사하여 삼체 행성에 그랬던 것처럼 태양을 파괴할 경우, 태양에서 쏟아질 엄청난 ‘화염 분수’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목성’을 ‘병커’로 삼아 목성 뒤편에 인류가 거주할 우주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윈텐밍과 무관하게 인류가 자체적으로 고안한 기술로, 당시 인류의 기술로는 충분히 구현 가능한 방법이었다. 그 밖에 윈텐밍이 청신에게 전한 ‘두 가지 방법’은 ‘블랙존 프로젝트’와 ‘광속 우주선 프로젝트’로 지칭되었다. ‘블랙존 프로젝트’는 태양계를 거대한 ‘저광속 블랙홀’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류가 태양계 밖 외계 문명에 “우리는 외계 생명체를 공격할 의사가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로 활용될 수 있다. 태양계가 블랙홀이 된다면 그 이상 빠른 것이 없는 ‘빛’조차도 태양계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느려지므로, 인류가 고안한

6) 류츠신 지음, 허유영 옮김, 『삼체 3부 - 사신의 영생』, 단숨, 2019, 73쪽.

그 어떤 무기도 태양계 밖을 향해 공격할 수 없게 되고 외계로부터 날아온 공격 무기 또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파괴된다. 마지막으로 ‘광속 우주선 프로젝트’는 빛의 속도에 버금가는 광속 우주선을 대량으로 제작하여 인류의 일부를 탑승시켜 태양계 밖 우주공간으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중 인류가 자체적으로 고안해 낸 프로젝트인 ‘벙커 프로젝트’는 가장 현실적이자 타협적인 대안이었다. 인류는 외계 문명에 의한 태양의 파괴가 야기할 대재앙의 피난처를 구상하였고, ‘목성’이라는 행성이 적합한 대상임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이 ‘벙커 프로젝트’는 인류를 태양계로부터 도피시키는 ‘광속 우주선 프로젝트’가 초래하는 ‘죽음의 불평등’을 방지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인류의 활동 범위를 태양계 내부로 제한하고 과학 문명의 발달을 저해할 ‘블랙존 프로젝트’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인류는 오랫동안 발달되고 살았던 지구의 ‘토양’으로부터 벗어나 “좁고 황량하고 외부와 단절된 태양계의 변두리에서”⁷⁾ 살아야 한다. 또 그것은 인류의 생존을 도모하는 것이기는 하나, 지구라는 행성의 소멸을 막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청신과 그의 조수 아이AA(艾AA)는 238년 간의 동면을 마치고 깨어난 뒤, 이 ‘벙커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완벽하게 실현되었음을 보게 된다.

이러한 ‘벙커 프로젝트’의 의의는 다음 몇 가지로 개괄할 수 있다. 첫째, 그것은 외계 문명의 예상되는 공격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해줄 수 있다. 둘째, 그것은 인류가 당장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셋째, 그것은 ‘죽음의 불평등’에 반대하는 대중과 태양계 외부의 새로운 정복과 식민을 갈구하는 모험가/자본가 사이의 욕망을 절충한 여론 정치의 산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세 번째 의의이다. 이미 기득권과 부유층의 ‘도피주의’가 야기한 재앙을 여러 차례 목도한 대중들은 결코 ‘광속 우주선 프로젝트’를 찬성할 수 없었고(그들은 지구에 버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개척과 모험의 정신으로 가득찬 기득권자들에게 우주라는 광활한 기회의 공간을 자포자기해야 하는 ‘블랙존 프로젝트’는 자신들의 ‘자유’를 억누른다는 점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7) 류츠신, 위의 책, 515쪽.

없는 것이었다. 이에 연방 정부는 법적으로 금지한 ‘광속 우주선 프로젝트’와 ‘블랙존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하는 웨이드의 ‘헤일로시티’ 집단을 경계하였고, 동면에서 깨어난 청신으로 하여금 웨이드를 설득해 진행중인 프로젝트를 포기하게 만든다.

그러나 문제는 ‘벙커 프로젝트’가 구축한 그 ‘벙커’가 외계 문명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완전히 무력했다는 점이다. 외계 문명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는 결국 윈텐밍이 제시한 두 가지 힌트에서 찾아야 했다. 인류는 윈텐밍의 고도로 함축적인 우화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대체로 성공했지만, 그것이 외계 문명의 공격으로부터 태양계를 지키는 유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에는 실패했던 것이다. 그것은 청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웨이드 집단이 자신들이 발명한 ‘반물질탄약’으로 연방 정부를 ‘위협’하면서 연방 정부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두 개의 프로젝트에 무모하리만치 집착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녀는 윈텐밍으로부터 전해 들은 그 두 개의 프로젝트가 지닌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오직 웨이드 집단의 위험성만을 우려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둘러싸고 등장인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오늘날 민주 정치 모델의 문제를 상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작품 속에서 ‘휴머니즘’과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인 청신은 이 대목에서 지구와 태양계를 외계 문명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두 번째 중요한 기회를 놓친다.

작가는 태양계의 2차원화가 진행되는 절망적 장면을 공들여 서술한 후, 다음과 같이 촌평한다. “인류도 알고 있는 벙커를 그들이 몰랐을까? 생존을 가로막는 건 무능과 무지가 아니라 오만이다.”⁸⁾ 청신을 비롯한 인류는 그 ‘오만’으로 인해 윈텐밍이 말한 ‘바늘귀의 그림’이 태양계의 2차원화 위험을 은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깨닫지 못했고, 그가 삼체인들에게 죽임 당할 것을 무릅쓰고 전한 두 가지 해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 다행이었던 것은, 웨이드가 죽은 후에도 그의 멤버들은 연합 정부의 눈을 속여가며 끈

8) 류츠신, 위의 책, 646쪽.

질기게 ‘광속 우주선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그 결과 태양계가 2차원화될 무렵 여러 대의 광속 우주선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 광속 우주선의 혜택을 입어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2차원화 되어가는 태양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던 인물이 청신(그리고 그의 조수 AA)이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류츠신은 이 작품 속에서 오늘날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와 그것이 기초해 있는 휴머니즘과 자유주의 이념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에게 특정한 정치 체제나 이념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일 수 없다. 우주적 지평에서 보면, 모든 체제와 이념은 우선적으로 ‘생존’이라는 가치에 종속되어야 한다. 어떠한 체제나 이념을 일종의 도그마(dogma)로 삼고 그것 자체를 하나의 목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인류의 ‘오만’으로 간주된다. 작품에서 우주라는 광대무변한 공간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못 생명체, 그들이 일궈놓은 문명은 지구 인류가 구축한 어떠한 고정된 사상이나 체제로도 설명될 수도, 설득될 수도 없는 것으로 그려지는 셈이다.⁹⁾

3. 포기된 주권, 자기보호의 역설

『삼체』의 위와 같은 내용은, 독재정 내지 권위주의적 통치모델에 대한 옹호로 비쳐질 수 있다. ‘민주주의’가 지구적으로 보편적 정치 형태/이념으로 인정받고 있는 오늘날, 류츠신의 작품이 드러내는 그와 같은 ‘정치적 의미망’은 일부 독자들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권위주의 통치모델’을

9) 예를 들어 류룽룽(劉茸茸)은 ‘청신’이라는 인물 형상을 젠더 담론과 연관시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여성화된 인류가 위기 앞에서 드러낸 취약한 본질에 대해, 작가는 주저없이 비판을 가한다. 민주, 도덕, 인성의 화신인 청신의 선택을 작가는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즉 그녀의 온갖 행위들은 양심을 위해 인류를 희생시키고 말았다는 것이다.” 劉茸茸, 「性別·寓言·烏托邦—劉慈欣『三体』中的文化啓示与后人類想象」, 『小說評論』, 2021. 9, 162쪽.

서구식 민주주의를 극복할 대안적 정치체제로 구상 중인 최근 중국의 행보를 볼 때, 그러한 서사는 더더욱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 연구자는 이와 관련하여 “중국 현대화의 과정에서 서구적 자유와 민주화를 억제하며 효율적인 공산당 일당체제를 통하여 21세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는 현재 중국 정치권의 논리도 살짝 어른거린다.”¹⁰⁾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은 다소 지나친 감이 있지만, 작품에서 독재나 권위주의적 통치 이념에 대해 긍정하는 대목을 발견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작가는 무엇이 ‘독재’이고 ‘권위주의’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다수의 ‘대중’인 사회를 그리 바람직하게 묘사하고 있지도 않다. 뤼지의 권한이 청신으로 이양된 후 15분 사이에 벌어진 삼체 세력의 공격 상황은 ‘예외상태’의 결정을 요하는 상황으로서, ‘정상상태’에서 통용되던 일체의 민주적, 인도주의적 규범은 ‘생존’이라는 지상과제에 의해 부차적인 것으로 떠밀리다.

칼 슈미트(C. Schmitt)에 따르면, ‘예외상태’는 “공공적 혹은 국가적 이익, 공공의 안전과 질서, 공공 후생 등이 관건이 되는 갈등상황”이며 이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존재가 바로 ‘주권자’이다. 예외상태는 오로지 ‘주권자’에 의해 그야말로 ‘결정’되는 것으로,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일반적 규범은 절대적 예외를 결코 파악하지 못하고, 진정한 예외상황이나 아니냐에 대한 결정도 완전하게 근거 짓지 못하기 때문”에 주권자는 “통상적으로 법질서 바깥에 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안에”서 “헌법을 완전히 효력정지시킬 것인지 어떤지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¹¹⁾ 또한 주권자는 “원칙적으로 제한 없는 권한, 즉 모든 현행 질서를 효력정지시키는 권한을 포함”하며, 이 사례에서 “국가는 이른바 자기보존의 권리에 따라 법을 효력정지시키”게 된다.¹²⁾ 아감벤(G.

10) 김미정, 「류츠신의 『삼체』 읽기-과학과 문학의 상관관계」, 『중국어문학』 89집, 2022. 4, 19쪽.

11) 칼 슈미트 지음, 김항 옮김, 『정치신학-주권론에 관한 네 개의 장』, 서울: 그린비, 2010, 17-18쪽.

12) 칼 슈미트, 위의 책, 24쪽.

Agamben)은 칼 슈미트의 이러한 사유를 다시 ‘규범’과 ‘결정’이라는 법의 두 가지 요소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데, 그에 따르면 “예외상태는 궁극적으로 규범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규범을 그것의 적용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다. 예외상태는 어디까지나 현실에 대한 효과적인 규범화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 아노미의 지대를 법 속에 도입하는 셈이다”¹³⁾

류츠신 작품 속의 ‘예외상태’가 칼 슈미트가 말한 그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칼 슈미트적 의미에서 주권자에 의한 ‘결정’은 해당 국가의 혼란 상황을 법에서 정한 규범 밖의 수단으로, 혹은 그러한 규범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수습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류츠신의 작품 속 ‘검잡이’의 ‘결정’은 적대 세력을 향한 위협을 실제적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오히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세계마저도 붕괴시킬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중 ‘검잡이’를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주권자’로 해석할 수 있는 까닭은, ‘검잡이’의 ‘결정’이 외계 문명의 침략이 야기할 혼란에 대한 대응이고, 그 ‘결정’이 규범화되어 있는 결정인 동시에 ‘정상상태’의 모든 규범을 중지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 정치에서의 예외상태가 정부나 인민에 적대적인 세력을 상징한 것인 경우가 다수인 것처럼, 류츠신 작품 속에서의 예외상태도 지구 세계에 적대적인 외계 세력을 상징하고 있다. 즉 양자는 모두 외부 세력에 의한 위기가 종식되는 국면을 목표로 주권자에 의해 규정된다. 작품 속에서 ‘검잡이’의 ‘검’은 일종의 메타포이다. 그것은 사람을 찌르는 검이 아니라 일상의 법과 규범이 통용되는 ‘정상상태’의 시간을 절단시키는 검이다. 작품에서 이 ‘정상상태’의 시간을 중지시키고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검잡이’는 지구와 삼체 세계 모두의 운명을 쥐고 있는 유일무이한 주권자이다.

뤼지에 의해 ‘위협통제권’이 발명된 후, 지구 세계는 삼체 문명이 전수해 준 과학 기술로 인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구가했고 인류는 성별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성화’되었다. 이로 인해 60여 년 전 삼체 세계가 보낸 ‘물방울’에 의해 ‘막강한’ 위용을 자랑하던 지구함대가 순식간에 궤멸된 일은

13) 조르조 아감벤 지음, 김항 옮김, 『예외상태』, 서울: 새물결, 2009, 75쪽.

지구인들의 뇌리에서 거의 잊혀졌고, 뉘지는 오히려 지구의 평화와 자유를 억압하는 위험한 권력으로, 심지어 “한 세계 전체를 멸망시키고 모든 생명을 죽인” 이유로 사형에 처해져야 할 죄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위협통제권’을 발명하기 위한 ‘실험’으로 한 항성의 좌표를 우주공간에 전송하여 그 항성의 멸망을 초래한 뉘지는, 삼체 세계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실질적 위협이었지만, 오랜 평화에 길든 지구인들에게 그는 경악스런 살인마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그것은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주권자의 규범적인 동시에 초규범적 성격을 온전히 규범적인 차원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민주 정치의 이념과 상통한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이념이 관철된 결과, 뉘지에 이어 2대 검잡이로 인도주의와 평화의 화신이라 할 수 있는 청신이 선출되었던 것이다.

물론 많은 경우—비근하게 동아시아의 현대사를 보더라도— ‘규범을 중지시키는 규범’으로서의 예외상태는 공적인 폭력을 동원한 국가의 자기파괴로 인해 종종 심각한 사회적-개인적 외상을 수반한다.¹⁴⁾ 이와 같은 부당한 국가 폭력 속에서 제기되는 ‘국민주권’의 이념은 그 자체로 해방적 성격을 지니기에,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주권자의 권능을 쉽사리 승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류츠신은 작품에서 주권자의 결정권에 대한 거부가 부당한 폭력에 대한 대항적 양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나태와 오만, 그리고 ‘사유의 중단’으로부터 빚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려 한다. 또 작가는 자기/타자를 냉정히 파괴할 수도 있는 무모함을 가진 자라야 자기/타자를 지킬 수 있다는 역설을 보여주려고 한다.

14) 가령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분단’은 지속적으로 ‘예외상태’를 창출하는 효과를 낳았다. 이와 관련하여 홍민은 “사실상 안보는 ‘외부’(북한)를 근거로 내부 통치의 기제로 역할을 해왔다. 외부를 내부화하고 내부를 외부화하며 ‘법률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이 교차하는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경계선’에 자리하는 ‘예외상태(exception status)’를 창출해왔다. 그런 점에서 ‘안보’는 하나의 통치 ‘장치(dispositif)’로 기능해 왔다는 점에서 사회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설명한다. 홍민, 「분단과 예외상태의 국가 : 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와 국가폭력」, 『북한학연구』, 제8권 1호, 2012, 66-67쪽.

4. 나가며 : 남은 자들의 결단과 인간의 위대함

하지만 류츠신의 정치적 사유를 간단히 ‘독재주의’나 ‘권위주의’로 치부할 수 없게 만드는 작품 속 내용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의 작품 속 내용의 상당 부분이 그러한 정치적 사유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과는 정반대의 가치, 즉 ‘자유’와 ‘계몽’, ‘사상해방’ 등의 가치를 완전히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한다고 보기 어려운 장면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령, 아래의 인용문을 보자.

지구문명이 삼체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삼체인들의 말이 사실 일 것이다. (중략) 시대를 바꿔놓을 만큼 엄청난 재난으로 인해 탄생한 독재 체제가 과학 발전을 통제하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상의 자유를 추구하고 개체의 가치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점점 높아졌다. 이런 것들이 그 머나먼 세계에서 르네상스와 비슷한 사상계몽운동을 일으키고 과학 기술을 발전시켰을 것이다.¹⁵⁾

역설적이게도, 뤼지가 위협통제권을 지니고 있었던 ‘위협의 시대’에 지구 세계가 삼체 세계로부터 과학 기술을 받아들여 엄청난 문명적 성장을 이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본디 대단히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지녔던 삼체 세계 또한 지구 세계로부터 사상의 자유와 개체의 존엄성을 받아들임으로써 기존 자신들의 과학 문명의 수준을 훨씬 제고시킬 수 있었다. 삼체 세계의 우월한 과학 문명은 지구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구축된 전체주의적 통제의 산물이었지만, 그것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던 것은 전체주의적 통제와는 완전히 상반된 자유와 계몽의 이념이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류츠신의 작품 속 정치적 사유를 단순히 ‘권위주의’나 ‘전체주의’적인 것으로만 볼 수 없도록 만드는 의미심장한 장면은 작품 말미에 보다 집중

15) 류츠신, 위의 책, 236쪽.

되어 있다. 우주에 남겨진 최후의 인류인 관이판과 청신은 삼체 문명에서 제작된 지자의 도움과 배려 속에서 자신들만의 평화로운 소우주에서 새로이 인류를 번성시키고 인류 문명을 재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가능성이 아닌 ‘다른 유형의 가능성’을 위해 자신들의 소우주를 포기하고 대우주로 진입한다. 그것은 우후죽순 생겨난 수백 개의 소우주에 질량을 빼앗겨 사라질 위기에 처한 대우주를 구해야 한다는, 대단히 무모하고도 희박한 ‘불가능한’ 가능성이었다. 그들은 “우주가 텅 빈 무덤이 되고 모든 문명과 기억이 이 끝없는 무덤 속에 영영 파묻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우주의 질량에 비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닐 ‘50만톤의 질량’을 대우주에 환원한다.

이러한 ‘우주 회귀 운동’은 “그것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하는”, 정해진 운명에 굴하지 않는 대항적인 정치행위이자 모두의 연대와 동행을 호소하는 참여적 정치행위라 할 수 있다. 그들의 그와 같은 정치적 선택이 어떤 결말을 빚어냈을지, 독자들은 작품으로부터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다만 『삼체』의 이와 같은 대단원에서, 과거 인류와 태양계를 파멸로 몰고 간 청신은 비로소 진정한 구원을 얻는 셈이다. 또한 이 장면은 묘하게도 “인간은 노력하는 동안 해매”기 마련이라는, 괴테(J. W. von Goethe) 『파우스트(Faust)』의 마지막을 장식한 자비로운 조물주의 목소리를 떠올리게 한다. ‘암흑의 숲’이라는 광막한 우주 공간에서 티끌처럼 보잘 것 없는 인류의 ‘선택’이 늘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나, 어찌면 이 소설은 튀지나 청신과 같은 인물들이 보여주는 인간과 인류 문명을 향한 사랑과 책임이, 그들 선택의 결과를 떠나 그 자체로 위대하고 숭고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려 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작품의 성격을 선불리 반인본주의, 반민주주의, 반도덕주의 등으로 개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청신’이라는 인물이 작가에 의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인물로, 일종의 반면교사적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봐서도 안 된다. 가령 추웨이 왕(Chuwei Wang), 텅 리(Ting Li)는

류츠신의 『삼체』가 ‘생존 제일주의’적 주제를 함축하고 있고 (이들은 이러한 ‘생존 제일주의’가 작가의 성장배경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본다) 작가가 웨이드나 장베이하이와 같은 대단히 현실주의적이고 냉혹한 성격의 소유자들을 긍정적으로, 청신처럼 휴머니즘적이고 인류애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웨이드나 장베이하이는 ‘합리적인 생존 제일주의자’들인 반면, 청신은 “미련하리만치 우직한 인물이며, 그 우직함은 독자들이 가장 비판하는 지점”이라고 말한다.¹⁶⁾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어쩌서 작가가 대 서사시의 가장 마지막 장면에서 청신이라는 인물의 무모한 도전과 모험을 것처럼 숭고하게 그렸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류츠신의 『삼체』가 작가 자신의 정치적 사유와 이에 기초하여 작가 스스로 내린 특정 해답을 독자에게 일방적으로 강권하는 소설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이 소설에서 인류와 우주 공동체의 운명을 두고 작중 인물들이 내리는 선택과 결단을 정치적 의미망 속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독자들에게 다양한 사유의 폭을 제공하고 있다. 설사 작가 자신이 성장해 온 불우한 배경이 그에게 냉혹한 현실주의 사상의 토대를 형성했다 하더라도¹⁷⁾, 작가의 의식이 단순히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인류와 태양계가 모두 2차원화되는 소름끼치는 비극을 겪은 뒤 셀 수 없이 많은 시간이 지난 시점의 어느 우주 공간에서, ‘인간’ 청신이 보여주는 ‘대항적’이고 ‘참여적’인 정치 행위는 이 작품의 가장 큰 감동 포인트 중 하나이다. 그것은 독자들에게

16) Chuwei Wang, Ting Li, The Survival Theme of the Science Fiction “The Three Body Problem” Trilogy from Cixin Liu, *Advances in Social Science, Education and Humanities Research*, 2018, volume 289, pp. 574-575.

17) 류츠신의 부친은 허난성 출신으로 과거 국민당 군대에서 복무한 경력으로 인해 문화대혁명 시기 베이징으로부터 산시(山西) 양취안(陽泉)의 탄광으로 배치되는 고초를 겪었다. 1963년생인 류츠신은 가족 수난사의 한복판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고 할 수 있다. 또 류츠신은 한 인터뷰에서 이 작품을 집필하던 당시, 자신이 일하던 발전소에 대규모 감원 바람이 불어 이 작품의 비판적 성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 바 있다. Chuwei Wang, Ting Li, 위의 글, p. 571.

냉소와 분노를 자아내기보다는 결코 뿌리뽑을 수 없는 인간의 위대함과 고결함을 보여주는 서사적 장치로 기억되기에 충분히 보인다.

參考文獻

- 김근식, 「북한의 핵협상 : 주장, 행동, 패턴」, 『한국과 국제정치』 27권 1호, 2011. 3
- 김미정, 「류츠신의 『삼체』 읽기-과학과 문학의 상관관계」, 『중국어문학』 89집, 2022. 4
- 류츠신 지음, 허유영 옮김, 『삼체 3부 - 사신의 영생』, 단숨, 2019
- 박민호, 「류츠신 『삼체』를 통해 본 정치적 알레고리와 윤리의 문제」, 『중국문학연구』, 72집, 2018. 8
- 박정훈, 「류츠신 『삼체』의 니힐리즘 세계관 고찰」, 『중국연구』, 86집, 2021. 3
- 손무정, 「2차 북한 핵 위기 협상과 미국과 북한의 벵골 정책」, 『국제정치연구』, 8권 1호, 2005. 6
- 손주연, 「중국 SF의 포스트휴머니즘적 문학 상상-류츠신의 『삼체』를 중심으로」, 『한중언어문화연구』, 65집, 2022. 8
- 조르조 아감벤 지음, 김항 옮김, 『예외상태』, 서울: 새물결, 2009
- 칼 슈미트 지음, 김항 옮김, 『정치신학-주권론에 관한 네 개의 장』, 서울: 그린비, 2010
- 홍민, 「분단과 예외상태의 국가 : 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와 국가폭력」, 『북한학연구』, 제8권 1호, 2012
- 陳曉明, 「後文明時代的寫作或後文學的誕生」, 『文藝爭鳴』, 2021. 9
- 劉慈欣, 吳言, 「星空的奧妙 : 劉慈欣訪談」, 『名作欣賞』, 2016. 1
- 劉茸茸, 「性別·寓言·烏托邦-劉慈欣『三體』中的文化啟示與後人類想象」, 『小說評論』, 2021. 9
- Chuwei Wang, Ting Li, The Survival Theme of the Science Fiction “The Three Body Problem” Trilogy from Cixin Liu, *Advances in Social Science, Education and Humanities Research*, 2018, volume 289

Abstract

The Political Meanings of Liu Cixin's *Three-Body*

Park, Min Ho

This study is an attempt to find the meaning of this work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while taking a look at the contents of the political meanings melted in *Three Body*, a representative work of world-renowned SF writer Liu Cixin. Liu Cixin's *Three Body* expresses the universal principle of the universe as a 'dark forest', and seems to define the existence of intelligent life in the universe as a strict struggle for survival. In particular, the confrontation between Thomas Wade and Chengxin in the story in Part 3 of *Three Body* is understood as a confrontation between cold-hearted realism/authoritarianism and ideal humanitarianism/democracy. In particular, the crises and ruins of human being repeatedly caused by Chengxin's weakness seem to lead readers' thoughts to realist ideology.

However, this study analyzes that the politics of participation shown by the last human named Chengxin at the finale of the work resists the simple interpretation of the character of this work as 'cold-hearted realism'. Through this narrative device, the writer creates the effect of liberating the reader's thoughts to the maximum rather than directing them in a specific direction.

Key words : Liu Cixin, *Three Body*, brinkmanship tactics, state of exception, sovereignty, liberalism

투 고 일 : 2023. 7. 10. / 심 사 일 : 2023. 7. 15. ~ 2023. 8. 15. / 게재확정일 : 2023. 8. 20.

